



KIA 황대인의 남다른 각오

“삼진이요?  
100개 짬은  
먹어야죠!”

“많은 경기에 출전해 후회 없이 자신감 있는 스윙 하고파”



KIA 타이거즈 황대인이 '삼진 100개'를 목표로 뒀다. 지난 2015년 '특급 유망주'로 기대를 받고 KIA 유니폼을 입은 황대인은 올해로 벌써 7년 차다.

상무 시절을 제외하고 입단 후 지난해까지 황대인은 101경기 출장에 그쳤다. 그것도 지난해 가장 많은 63경기를 소화하면서 채운 100경기다.

올 시즌에도 시작은 퓨처스리그였다. 지난 5월 13일 황대인은 올 시즌 처음 1군에 등록됐다.

그리고 이날 대타로 타석에 선 황대인은 투런포를 날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와 삼진 2개만 기록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알토란 같은 타격을 하면서 지난 5월 34타수 9안타(타율 0.265)로 7타점을 만들었다.

수비는 물이 올랐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주면서 1루 강화에 성공했다. 타커의 외야 이동 속 류지혁의 부상 등 팀의 약재가 황대인에게 기회를 뒀다.

기회를 얻은 황대인은 삼진 100개를 이야기한다. 얼핏 보기에는 황당한 목표일 수 있지만 나름의 의미와 각오가 담겼다.

황대인은 “시즌 시작하면 늘 목표가 삼진 100개. 삼진 100개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합에 많이 나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좋게 들을 수도 있지만 삼진 100개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삼진 100개’는 경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자신 있게 자신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황대인은 “지난해 불넷으로 많이 나간 적이 있다. 그때 오히려 타격이 안 좋았다. 지금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타격 포인트를 앞에 놓고 치려고 한다”며 “팀 입장에서 1루타를 치는 것보다는 장타

를 많이 쳐야 좋은 것이니까 강하게 돌리고 있다. 2군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삼진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삼진 먹더라도 자기 스윙 나오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하고 후회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삼진 먹는 걸 두려워했다. 지금도 두렵기는 하지만 후회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물론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삼진 안 먹어야 할 때는 어떻게든 내 역할을 해야 한다. 송지만 코치님이랑 이야기 하면서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타이핑만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비는 ‘당연한 것’이 됐다. 황대인은 “수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타석에서 무안타이면 내가 못한 것이니까 속상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에러를 하면 팀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은 ‘기회’의 또 다른 단어. 황대인은 잦은 부상 기회로 놓치곤 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류지혁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었다. 황대인은 “팀 사정상 이렇게 됐지만, 내에게는 기회다. 기회 왔을 때 최대한 잘하려고 해야 한다”며 “부상은 조심조심하다가 더 온다. 내 할 것만 열심히 하면 안 오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KIA의 현재이자 미래로 동료들과 팀의 자존심을 살리는 게 황대인의 바람이다. 황대인은 “나도 벌써 7년 차다(웃음). 지금 순위는 좋지 않지만 팀 분위기는 좋다. 실수한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잘 된 부분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조언도 해준다”고 말했다.

팀 반전의 한 축을 꾸리는 황대인은 ‘꾸준함’을 또 다른 목표로 이야기한다. 황대인은 “꾸준하게 하고 싶다.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싶다. 최대한 여기(1군)에서 야구하고 싶다. 열심히 해서 이곳에 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진흥고 문동주 154km ‘씽씽’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선발 등판 장춘고 꺾고 32강 진출

문동주의 스피드를 앞세운 진흥고가 ‘난적’ 장춘고를 꺾고 황금사자가 32강에 진출했다.

진흥고가 2일 신월야구장에서 열린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1회전에서 장춘고를 4-2로 제압했다.

올 시즌 고교 투수 최대어로 꼽히는 우완 문동주가 선발로 나서 최고 154km의 공을 뿌리며 눈길을 끌었다.

1-1로 맞선 6회 1사 1루에서 등판을 마무리한 문동주는 이어진 장춘고의 공격에서 자신의 책임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패전 위기에 몰렸지만, 팀이 8회 동점을 이룬 뒤 9회 재역전을 거두면서 웃었다.

진흥고 투타자 김지성이 1회 불넷으로 출루한 뒤 고은수의 희생번트와 오건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신명승의 2루타가 이어졌지만 스퀴즈 번트 실패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문동주는 1회말 선두타자 최동희에게 내야안타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1회를 넘겼다. 1사에서 연속 안타를 허용한 2회도 역시 무실점으로 막았다.

하지만 문동주가 3회 2사에서 정준영에게 우중간 3루타를 맞은 뒤 보크로 1-1 동점을 허용했다.

문동주는 5회와 6회에도 2루타 하나씩 내렸지만 추가 진루는 허용하지 않았다.

6회를 삼구삼진으로 시작한 문동주는 장운연에게 불넷을 내주면서 90구에서 등판을 끝냈다. 이어 등판한 박대현이 불넷 뒤 보크를 기록하면서 1사 1-3루, 권세움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문동주의 성적은 5.1이닝 6피안타 2불넷 4탈삼진 2실점이었다.

2, 3, 6, 7회를 삼자범퇴로 물러났던 진흥고 타선이 8회 다시 움직였다.

1루수로 이동한 문동주가 1사에서 3루수 실책으로 걸어났다. 김지성의 땅볼 때 선행주자가 아웃됐지만, 투수 견제구가 빠지면서 2사 3루가 됐다. 그리고 고은수의 내야안타로 진흥고가 2-2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9회초 진흥고가 몸에 맞는 볼과 불넷으로 무사 1-2루를 만들었다. 공지웅의 희생번트에 이어 김재용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역전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스퀴즈 번트 실패로 3루 주자가 아웃됐지만, 안재민이 적시타로 4-2를 만들었다.

그리고 9회말 수비에서 박대현이 1사에서 안타를 맞았지만, 삼진과 3루 땅볼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채우면서 진흥고의 승리를 확정했다.

진흥고는 6일 오후 6시 30분 구미 도개고와 16강을 다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일 서울 신월야구장에서 열린 제75회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대회 광주진흥고와 서울 장춘고 경기에서 진흥고 문동주가 역투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손흥민, 펠레의 선택 받았다  
‘FIFA 21’ 메시·호날두와 나란히

손흥민(29·토트넘)이 리오넬 메시(34·FC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와 나란히 ‘축구황제’ 펠레(81)의 선택을 받았다.

손흥민은 1일(현지시간)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EA)가 발표한 온라인 축구게임 ‘FIFA 21’ 속 ‘펠레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펠레는 FIFA 21에서 활용할 11명의 선수 명단을 꾸리면서 손흥민을 왼쪽 윙백으로 발탁했다.

토트넘에서 주로 2선 공격수로 뛰는 손흥민에게 딱 맞는 자리는 아니다.

그는 2017년 4월 첼시와 2016-2017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4강전에서 왼쪽 윙백으로 출전해 고전하다 상대에게 패널티킥을 내준 기억도 있다. 당시 토트넘은 2-4로 완패했다.

하지만 펠레가 팀의 대다수를 공격수로 구성하는 ‘초 공격형’ 전술을 꺼내 들면서 손흥민은 윙백에 위치하게 됐다.

펠레는 3-4-3 포메이션에서 최전방에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를 세우고, 양옆에 호날두와 메시를 배치했다.

손흥민과 무함마드 살라(리버풀)가 양쪽 윙백을 맡고 중원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지난해 사랑한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가 책임진다.

수비진에는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 치아구 시우바(첼시)와 함께 펠레의 옛 브라질 대표팀 동료인 카를루스 아우베르투가 포함됐다.

골키퍼로는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펠레의 선택을 받았다.

한편,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과 도움왕을 석권한 해리 케인(토트넘) 등이 올해의 선수를 놓고 경쟁한다. 하지만, 토트넘 공격진에서 케인과 ‘찰떡궁합’을 뽐내며 득점과 도움 모두 4위(17골 10도움)에 오른 손흥민(29)은 후보에 들지 못했다.

EPL 사무국은 1일(현지시간) 올해의 선수를 비롯한 시즌 개인 시상 부문 후보를 공개했다.

올해의 선수 후보에는 이번 시즌 23골 14도움을 몰아쳐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한 케인을 필두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에서 케인, 테르브뤼너, 후버, 디아스 등 두 명의 후보가 나왔고, 브루누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무함마드 살라(리버풀), 메이슨 마운트(첼시), 토마시 수척(웨스트햄), 잭 그릴리시(애스턴 빌라)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텍사스 양현종, 사후 판정으로 자책점 1개 줄어

평균자책점 5.53 → 5.20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의 사후 판정으로 자책점 1개가 줄었다.

양현종의 시즌 평균자책점이 5.53에서 5.20으로 좋아졌다.

2일(한국시간) MLB닷컴 텍사스 레인저스 페이지를 보면, 양현종의 5월 31일 시애틀 매리너스 전 등판 결과가 3이닝 5피안타 3실점 2자책에서, ‘3실점 1자책’으로 바뀌어 있다.

양현종은 당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조기 강판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억울한 자책점도 있었다.

3회말 1사 후 시애틀의 카일 루이스 타구를 텍사스 중견수 아들리스 가르시아가 놓쳤다. 강한 타구였지만, 공이 가르시아의 글러브에 맞고 떨어졌다.

MLB닷컴은 이 타구를 중견수 실책으로 기록했다.

후속타자 카일 시거의 빗맞은 우전 안타 때 루이

스는 3루에서 멈췄고, 공이 홈으로 향하는 사이 시거는 2루에 도달했다.

1사 2, 3루에서 타이 프랑스가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쳤다.

양현종은 J.P. 크로퍼드를 1루수 앞 병살타로 처리하며 이닝을 끝냈다. 당시 기록원은 실책으로 출루한 루이스의 득점은 비자책으로, 시거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양현종이 루이스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해 상황을 재구성하면, 시거의 득점도 비자책으로 볼 수 있다.

루이스가 누상에 없었다면, 텍사스 우익수 조이 겔로가 굳이 홈으로 송구할 필요가 없었고 시거도 2루에 갈 수 없었다.

프랑스가 중전 안타를 쳤지만, 루이스는 2루 혹은 3루까지만 갈 수 있다.

양현종이 크로퍼드를 1루 땅볼로 처리했으니, 실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2실점 모두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사후 판정을 통해, 양현종의 5월 31일 시애틀전 3회 2실점을 모두 비자책으로 정정했다.

/연합뉴스